

제3회 2006년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  
金壽卿(1918-1999)

김수경(1918-1999)은 1918년 강원도에서 태어나, 경성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sup>1)</sup> 월북하였고, 김일성대학 조선어문학부 조선어학 강좌장을 역임하면서 북한 국어학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외에는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아, 그가 어떤 계기로 국어학을 연구하게 되었고 어떤 인물들과 교류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그의 삶의 궤적 대부분을 그가 남긴 논문과 저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월북 전 활동) 경성고등상업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불어를 가르치던 김수경은 1946년 중등교원 양성을 위해 설립된 '경성대학 예과 부설 임시 중등교원 양성소'와 '경성사범학교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에서 '조선어학개론'을 강의하면서 국어학 연구의 길에 들어섰다.<sup>2)</sup> 그리고 그해 5월 조선어학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조선어학회의 기관지인 「한글」에 논문을 실거나 사전 편찬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는 월북하기 이전 "용비어천가 삽입자음고"라는 한 편의 논문만을 남겼는데, 이는 그가 쓴 최초의 국어학 논문이었다.

1947.05. "龍飛御天歌 插入子音攷." 「震檀學報」15.

그러나 이 한 편의 논문은 그의 연구 역량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조주의 연구 방법론에 기대 이 논문은 그가 불어를 공부하면서 쌓은 언어학적 지식과 철학을 전공하면서 접했을 언어철학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논문에서는 삽입자음 'ㅅ'이 속격의 '의'와 구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삽입자음의 분포 환경<sup>3)</sup>을 통해 밝혔고, 삽입자음이 개재하는 두 어사의 종속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語辭의 順列 즉 意義部의 상호 위치가 종속적 관계를 나타내는 形態部라고 보았다. 이는 곧 삽입자음에 문법적 기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최근 남한의 국어학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학계의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어학 논문 외에 김수경은 월북하기 전 번역서 한 권을 출간함으로써, 한국학 분야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이 번역서가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이 저술한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éene)》<sup>4)</sup>의 '서론' 부분만을 따로 번역한 「朝鮮文化史序說」이다. 1946

1) 월북 시점에 대해서는 1946년으로 본 기록도 있고, 1948년으로 본 기록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일단 서울신문사 국제전략연구소 편 「북한인명사전」(1998)의 기록을 따라 그의 월북 시기를 1946년으로 보았다.

2) 이 내용은 김민수 선생님의 회고를 바탕으로 기술된 것임을 밝힌다. 김민수 선생님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중등교원 양성소에서 김수경으로부터 '조선어학개론' 강의를 들은 바 있는 국어학자로는 김민수(경성사범학교부설 중등교원 양성소), 강길운, 남광우(경성대학 예과 부설 임시 중등교원 양성소) 등이 있었다.

3) 선행어의 끝이 유성음('母音', '鼻音', '流音')일 경우에만 삽입자음이 나타남.

4) 《조선서지(전3권)》는 1894년부터 1896년 사이에 프랑스 파리에서 간행되었고 그후 1901년에 보유 1권》이 추가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조사한 조선서적 3,821부를 교회(敎誨), 언어, 유교, 문목(文墨), 의범(儀範), 역사서, 기예(技藝), 교문(敎問), 교통의 9부문으로 분류한 다음, 상세한 서지학적 해설과 문화사적 논평을 추가하였다.

년 凡章閣에서 출판된 이 책은 1995년 범우사에서 재출판되었다. 재출판된 책의 앞머리에는 “원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창달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한 번역서”라는 소개말이 실려 있는데, 이는 번역가로서 김수경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다.

(북한에서의 활동) 김수경은 19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말까지 문법론, 언어정책론, 문체론 등을 주제로 여러 논문과 단행본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국어학의 체계를 수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소련 언어학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이 논문과 번역은 모두 북한 국어학 연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는 연구로 평가 받고 있다.

### 문법론에 대한 연구

1949.05.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插入字母의 本質.” 「조선어연구」1-2.

1953. “현대조선어 연구서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학보」1호.

1954.01. 「조선어문법」(문장론) 초급중학교 제3학년용, 평양: 교육 도서출판사.

1954.11. 「조선어문법」(어음론 형태론) 초급중학교 제1,2학년용, 평양: 교육 도서출판사.

1956.02.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상).” 「조선어문」1호.

1956.04.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하).” 「조선어문」2호.

\* 공저를 하였거나 집필에 참여한 저서

조선어문연구회(1949). 「조선어문법」, 평양: 조선어문연구회.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 「조선어문법」1, 평양: 과학원출판사.

김수경.김금석.김영환(1961). 「현대조선어」1,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김수경.김백련(1961). 「현대조선어」2,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김수경.송서룡(1962). 「현대조선어」3,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김수경.련종률.김백련.송서룡.김영환(1964). 「조선어문법」,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김수경.김금석.김영환(1964). 「조선어 어휘론 및 어음론」,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김수경은 「조선어 신철자법」(1948)이 공포된 후 만들어진 「조선어문법」(1949)을 집필하는데 참여한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표준문법서 편찬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진행된 북한 국어학계의 문법 논의를 주도해 나갔던 국어학자다. 특히 당시 북한 국어학계는 토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였고<sup>5)</sup>, 형태론과 관련한 김수경의 연구는 이 논의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다.

형태 분석에 대한 그의 견해는 1956년의 논문에 체계화되어 제시된다. 여기에서 그는 단어의 구조를 어근과 접두사, 단어조성의 접미사, 형태조성의 접미사(상, 시칭, 존경을 나타내는 것), 토(격, 법, 계칭을 나타내는 것)로 구분하였다. 그는 토를 단어적 성격과 접사적 성격을 겸한 이중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였고, 이런 점에서 토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사로 본 정렬모와 대조되었다.

49년과 54년의 문법서와 달리 60년 이후 출간된 북한의 문법서에는 토가 독립된 품사가 아닌 문법적 접사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토에 대한 그의 견해는 60년 이후 공식적

5) 1958년 “조선어형태론의 특성에 대한 학술토론회”와 1963년 “조선어문법구조연구에서 주체를 튼튼히 확립하기 위하여”라는 학술토론회에서의 주요 쟁점은 토의 성격 문제였다.

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 형태론 연구의 기초가 된 과학원언어문학 연구소(1960)의 형태론 부분<sup>6)</sup>을 김수경과 리근영이 담당 집필하였고<sup>7)</sup>, 이후 나온 문법서 역시 김수경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사실은 그의 연구가 북한 문법론 연구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북한 문법론 연구에서 김수경의 역할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그가 소련의 언어학 이론을 도입하였고 이를 국어학 연구에 적용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 북한 국어학의 이론 체계를 세우는 데 끼친 소련 언어학의 영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초기 국어학 정립 과정에서 그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래의 목록은 「조선어연구」에 실린 소련 학자 논문 중 그가 번역한 논문의 목록이다.

### 소련 언어학자 논문의 번역 소개

- 1949.04. “쏘베트 一般言語學三十年.” 조선어연구 창간호.
- 1949.04. “쏘베트 言語學의 當面課題” 조선어연구 창간호.
- 1949.05. “新 言語 理論 發展의 現段階.” 조선어연구 1-2.
- 1949.06. “三十年 間的 쏘련 東方學.” 조선어연구 1-3.
- 1949.09. “H.Я. 마르와 쏘베트 언어학.” 「조선어연구」1-6.
- 1950.02. “구조주의와 쏘베트 언어학.” 「조선어연구」2-1.

능숙한 러시아어 실력으로 소련 언어학자들의 논문을 섭렵한 그는 49-56년에 발표한 대부분의 논문에 이들의 이론을 인용하며 논의를 전개하곤 했다. “용비어천가에 보이는 삽입자모의 본질”이란 49년의 논문은 월북 이전에 발표한 “용비어천가 삽입자음고”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철자법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임을 밝혔다는 점, 최현배의 논의<sup>8)</sup>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 소련 언어학 이론을 논의 과정에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토’의 성격 규정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발표한 1956년의 논문에서도 토를 품사로 봐야 하는 이유를 소련 언어학자의 이론에 근거해 밝히고 있다.<sup>9)</sup> “조선어 학자로서의 김두봉 선생.”이란 글은 60회 생일을 맞는 김두봉의 학문적 업적을 찬양하는 글이었지만, 당시 소련 언어학의 이념적 기반이 된 마르의 언어 이론을 김두봉의 언어 이론과 대비시켜 설명한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언어이론의 정립을 위해 고심한 흔적의 일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김두봉 숙청 이후 김수경에게 정치적 시련을 안겨주었다.

- 1949.06. “조선어 학자로서의 김두봉 선생.” 「조선어연구」1-3.

### 국어사 및 국어학사와 관련한 연구

- 
- 6) 이 책은 어음론과 형태론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7)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348쪽 참조.
  - 8) 김수경과 최현배 논의는 사이시옷을 ‘의’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데에서는 공통적이거나 최현배(1937)에서 사이시옷을 문법적인 접사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수경의 논의와 차이가 있다.
  - 9) 웨.웨.위노그라도브의 논의는 토를 소품사의 하나로 규정짓는데, 아.아.홀로도위치의 논의는 단어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1956.02의 내용 참조).

1989.05. 『세나라 시기 언어력사에 대한 남조선 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고찰』<sup>10)</sup>, 평양: 평양출판사.

1989.05. “14-19세기 조선어에서의 동아시아언어연구의 몇가지 특성에 대하여.” 『조선관계 전문학자들의 국제과학토론회 토론집(언어학분과)』.

1994. “<번역로걸대박통사범례> 및 <로박집람>의 서지학적문제점과 어학사적의의에 대하여.” 『언어학논문집』<sup>11</sup>권.

『세나라 시기 언어력사에 대한 남조선 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고찰』은 우리말의 기원과 계승 문제에 대한 북한의 연구를 종합하고 이를 근거로 남한 학자의 학설을 비판한 책이다.<sup>11)</sup> 이 책에서 그는 우리말을 알타이어 계통으로 보는 견해를 부정하고 우리말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구려·백제·신라어의 이질성을 논한 남한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삼국의 언어가 동일적이었음을 주장했다. 그런데 그가 김영항이나 류렬처럼 지속적으로 우리말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다소 의외의 연구물이다. 단지 마지막 장의 제목<sup>12)</sup>을 통해, 국어학 연구를 항상 현실적인 언어 문제와 연관 짓고자 했던 그의 학문적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그러나 14-19세기 조선어에서의 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특성을 고찰한 논문이나, 최세진의 대표적인 저서를 대상으로 최세진의 역학 연구가 지니는 국어학사적 의의를 논한 논문을 볼 때, 그가 말년에 고대 및 중세 국어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의 첫 논문이 중세 국어 연구사에 길이 남을 “용비어천가 삽입자음고”였다는 사실 때문인지, 고대 및 중세 국어에 대한 연구가 뒤늦게 재개되어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 응용언어학(국어정책론, 사전학, 문체론)과 관련한 연구

북한 국어학의 연구 경향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김수경은 언어 연구 결과를 실제 언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용하는 데 성의를 기울였다. 47년에 발표한 “용비어천가 삽입자음고”를 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철자법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언어 연구의 응용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어정책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1947.06. “朝鮮語學會 <한글맞춤법통일안> 中에서 改政할 몇가지 其一 漢字言表記에 있어서 頭音 ㄴ 及 ㄹ에 대하여.” 『로동신문』1947.06.06-06.08.

1958.01.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어찌하여 한자를 폐지할 수 있었는가?” 『말과 글』1호.

1967.02. “우리 말 학술용어를 주체적으로 다듬기 위한 몇가지 문제.” 『어문연구』1호.

10) 김수경의 저서 『세 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1995년 한국문화사에서 『고구려·백제·신라 언어연구』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었다.

11) 이 책은 그의 박사논문이기도 하다.

12) 마지막 장인 IV장의 제목은 “언어연구에서 민족자주의식을 튼튼히 지녀야 하는데 대하여, 다시말하여 민족어의 통일적 발달을 위한 남북언어학자들의 과업문제에 대하여”이다.

13) 이 연구서가 당의 정책 과제로 수행되었을 뿐이지, 국어사에 대한 김수경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논증한 저술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위의 목록에서 1947년에 발표한 논문은 「로동신문」에 3회에 걸쳐 연재된 논문<sup>14)</sup>으로, 그가 월북한 이후 발표한 최초의 논문이다. 다음 1, 2의 표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표음주의적 편향을 비판하고, 형태주의 표기의 합리성을 주장한 이 글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 표기법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한글맞춤법통일안>과 외래어표기법의 근본 원칙에 근거한 비판, 각 언어의 양상을 실례로 한 비판, 한글 학습의 관습을 근거로 한 비판 등은 남북통일 규범을 마련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음’ 표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이시옷’ 표기 문제<sup>15)</sup>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1963.05. “《조선말 사전》(1~6)권.” 「조선어학」2호.

1965.11. “새로운 조선말 사전 편찬을 위한 몇가지 문제.” 「조선어학」4호.

언어 규범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사전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가 조선어학 2호에 실린 《조선말 사전》(1962)의 서평이다. 이는《조선말 사전》이 출간된 뒤 나온 최초의 공식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사전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사전의 편찬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1965년의 논문은 1964년 김일성 교시 이후 새로운 사전을 편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사전 편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여기에서 김수경은 통제사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제사전은 어휘 사용의 인위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규범 사전을 의미한다. 이후 나온 「현대 조선말사전」(1968), 「조선문화어사전」(1973), 「현대 조선말사전」(제2판)(1981) 등은 통제사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1961.08. “인민적 문풍 확립을 위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조선어학」3호.

1963.08. “문풍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기위하여.” 「조선어학」3호.

1964. 「조선어문체론」,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09. “최근의 정론들에 나타나고 있는 회화체의 요소” 「조선어학」5호.

김수경은 표현수법과 표현수단에 관련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고찰하는 수준의 문체론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 국어학자이다. 그의 저서「조선어문체론」은 1960년 이후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떠오르기 시작한 문체론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계화한 북한 최초의 단행본이다. 이 책에 대해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212쪽)에서는 “이 책은 언어실천과학으로서의 문체론의 연구대상과 연구뭇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하여 조선어문체론의 성립을 인정받을수 있게 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이후 북한에서 나온 문체론 연구는 모두 김수경의 저서를 바탕으로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문체론의 연구 영역과 연구 대상 그리고 연구 방법 등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

14) 필자는 이 논문을 「<겨레말큰사전> 북남공동편찬위원회 제7차회의 자료」를 통해 접하였다. 이 자료를 필자에게 제공한 원광대학교 국문학과 김재용 교수(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15) “용비어천가에 보이는 삽입자모의 본질”이란 논문은 사이시옷에 대한 북한 표기법 원칙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로 한국어학회의 「한국어학」 17집에 ‘자료 발굴과 소개’에 나와 있는 ‘김수경’ 부분을 첨부한다<곶제비치·심비르제바의 “1950년대 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조선 언어학 역사: 라치코프와 마주르의 개인 문헌 보관 자료 참조,” 「러시아 한국학」(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한국학 국제 센터 연감, 제2권, 모스크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출판부, 2001년)>.

김수경(金壽卿)[1/7] 김일성 대학에서 조선어 학부장 역임. 우리는 그와 자주 의견을 나눔. 다양한 전문 분야의 문법학자로 알려짐. 문법의 공저자이기에, 그는 여러 학교를 위한 문법을 기술함.

우리는 자주 김수경과 만났고, 함께 만경대에 갔으며, 일반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와 대학의 교수 그룹은 북한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때 선생들이 회사를 돌아볼 수 있는 실제 경험을 가졌고, 그들은 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금강산, 묘향산 그리고 많은 회사를 방문했다.

김수경은 조선어학의 일반적 문제와 조선어 문법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였다. 그는 뛰어난 조선 언어학자 중 한 명이었다. 학술 정기 간행물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일성 대학의 문학부 학부장이었으며 최고 인민 위원회의 남조선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거기서 1953-1961년까지 최고 인민 위원회의 의원이었고, 통일 민주주의 조국 전선의 의원이었다. 인민학습당의 주사서로 전임되었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3). “북한의 문자개혁에 관한 연구.” 「주시경학보」 12.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 서울대출판부.
- 金敏洙(1990). “朝鮮語學會의 創立과 그 沿革.” 「周時經學報」 5.
- 金敏洙 編(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4권 서울: 녹진.
- 金敏洙(1992). 「新國語學史」(全訂重版) 서울: 一潮閣.
- 김영환·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 임홍빈(1997). 「북한의 문법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최호철(2002). “자료 발굴과 소개.” 「한국어학」 17.

<2006년 11월 22일 최경봉>